

2025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Contents

Message	3
---------	---

1부_법무법인(유한) 지평 소개 5

01.1 법무법인(유한) 지평	6
01.2 지평의 비전과 가치	7
01.3 이해관계자	8
01.4 사회적가치 경영 추진 현황	8
—— ‘1층이 있는 삶’을 묻다— 대법원이 인정한 한 뼉의 권리	9

2부_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11

02.1 지평의 구성원	12
02.2 구성원의 역량강화	16
—— 장기연수 칼럼	18
02.3 인권과 안전	19
02.4 노사간 협력	20

3부_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22

03.1 지평의 업무영역	23
03.2 사업성과	24
03.3 신규업무개척	24
03.4 업무협약	26
03.5 법조윤리의 준수	26
03.6 고객과의 소통	29
03.7 법제연구	31
03.8 법학 교육 지원	31
—— 실무수습 소감	32

4부_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33

04.1 지평의 공익활동 지표	34
04.2 공익활동 측정 또는 평가	40
04.3 환경정책 및 사업	41
—— 공익전담 업무와 지평의 공익활동	42

APPENDIX 43

GRI 인덱스	44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45
공익활동 평가지표	45
보고서 개요	47

Message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임성택

지평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

지속가능성은 모든 기업과 조직이 지향해야 할 경영 철학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그 실천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 2025년, 우리는 보다 성숙해진 자세로, 우리의 철학과 실천을 이 보고서에 담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평은 2019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국내 로펌 중에는 처음으로
아직 유일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환경이나 ESG의 문제로만 오해합니다. 그러나 지평이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법률전문가인 우리는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전문성은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성장이 고객, 구성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펌 역시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며, 건전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펌은 동시에 법치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특별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기업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증폭 등은 어느 한 조직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법률가는 단순한 법률 기술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평은 이러한 믿음 아래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글로벌 규제 대응, ESG 경영체계 구축,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익소송, 사회적 약자 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 공익법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익활동을 단순히 홍보를 위한 부수적 활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은 우리의 전문성을 사회와 나누는 방법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임성택



01 OVERVIEW

1부_법무법인(유한) 지평 소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하여, '구성원의 행복, 고객 만족, 사회 공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 진정성, 진취성'을 가치로 여기며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지평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1.1 법무법인(유한) 지평

PROFILE

법인명	법무법인(유한) 지평(JIPYONG LLC)
대표변호사	윤성원, 박정식, 사봉관, 양영태, 김상준, 임성택, 김지홍, 이행규
설립일	2000년 4월 3일
본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ORGANIZATION

지평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위원회,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인재성장위원회, 디지털지평 TF, 리크루트위원회,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마케팅지원센터, 중요사건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한 책임 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GOVERNANCE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유한 법무법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경영의 기본방침 및 지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 등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5년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집행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영 구조를 갖추었으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기민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를 경영의 중요과제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 김지홍, 이행규, 정원, 정철

운영위원 김상준, 김지홍, 이행규, 정원, 정철, 이석재, 송한사, 이태현, 배기완

SERVICES AND SPECIALTIES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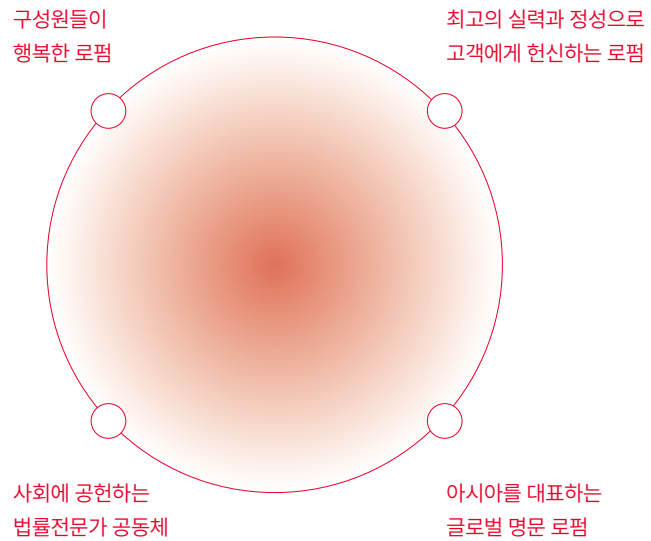
GLOBAL REACH

지평은 해외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설립 초기부터 해외 업무를 선도하는 로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현재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평은 202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9번째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여 아시아를 넘어 중동유럽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7년 상해 사무소 설립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중앙 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으며, 투자·진출, M&A, 금융,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해외 사업 진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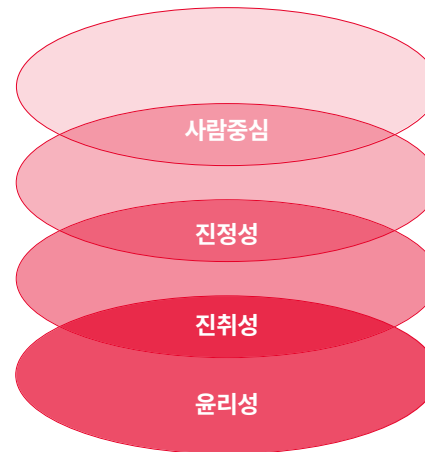


01.2 지평의 비전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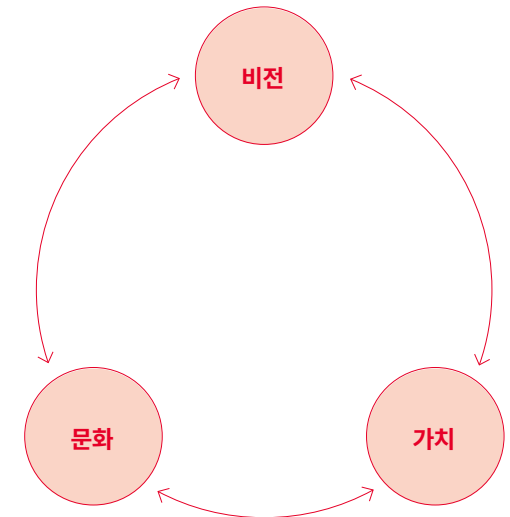
VISION



VALUES



IDENTITY



01.3 이해관계자

지평의 이해관계자

지평은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 협력사, 언론 및 공공기관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여러 소통의 채널을 통해 취합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범위	주요 관심 사항	소통 채널	주요 대응
구성원	국내외 모든 사무소의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직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역량 개발 기회, 일·가정 양립, 안전한 근무환경	파트너회의, 노사협의회, 예비구성원회의, 사내웹진, 고충상담 채널	인사평가 제도 운영, 장기연수 지원, 육아휴직 및 안식휴가 확대
고객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정부·공공기관, 개인	전문성 높은 법률서비스, 신속한 대응,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세미나·웨бина, 뉴스레터, 간행물, 유튜브	신규 업무영역 개척, 고객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
지역사회	사무소 소재 지역의 주민, 단체, NGO	공익활동 참여,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환경 영향 최소화	공익법률활동, NGO 협력사업, 업무협약	공익소송 및 자문 수행, 사회봉사활동, 친환경 오피스 정책
법조사회	변호사 단체, 법원·검찰 등 실무자, 법학 교수·연구자	법조윤리 준수, 법학 교육 지원, 법제 발전 기여	위원회 활동, 전문 세미나, 법제연구, 실무수습, 법학교육 출강	법제연구 수행, 로스쿨 출강 및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	서비스, 제품 구매처, 인력 지원 업체	법조윤리의 준수(동반성장, 공정거래, 소통)	구매미팅, 방문	
언론	지평의 활동을 취재·보도하는 기자 및 미디어	ESG·신기술·신산업 등 법률 트렌드, 지평의 사회적 역할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미디어 브리핑	주요 업무 성과 및 공익활동 정기 공개

01.4 사회적가치 경영 추진 현황

사회적가치 경영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를 위한 노력

지평의 사회적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는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추동하며, 인사, 교육, 업무, 조달, 지배구조, 환경 등 조직의 모든 영역과 법조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평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컴팩트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사례

장애인 접근권,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두의 1층’ 소송 수행

지평은 공익법 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협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유아차를 사용하는 양육자를 대리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익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만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행령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장애인권 활동가들과 법률가들이 함께 쌓아온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쳐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확인하고, 위법한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최초로 인용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입법 공백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해당 소송은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수상하며 그 사회적 의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평은 판결 이후에도 두루, 아산나눔재단, 협동조합 무의와 함께 실질적인 경사로 설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가며,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소송, 장애인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북한장애인실태조사 연구 참여, 장애인보호법위반 형사사건 지원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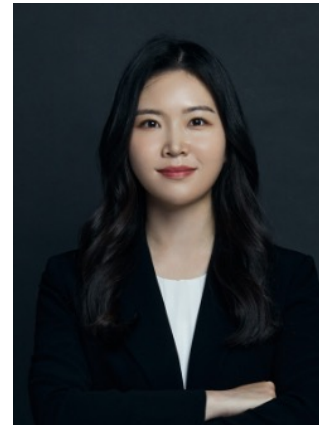
‘1층이 있는 삶’을 묻다

대법원이 인정한 한 뼨의 권리

휠체어를 탄 친구와 함께 밥 한 끼 먹으러 거리를 헤맨 적이 있는가. 가게 입구의 작은 턱 하나, 계단 한 칸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된다. 지평과 두루는 그 ‘한 뼨의 장벽’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입법운동을 거쳐 결국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 오랜 시간 쌓아온 고민이 하나의 판결로 모이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모두의 1층’을 향한 그 여정을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노선우 변호사에게 직접 들었다.



임성택 대표변호사



노선우 변호사

Q1. 「모두의 1층」 사건은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오랜 기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시게 된 계기와, 특히 중요하게 보셨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성택: 휠체어를 타는 친구와 식사를 하려면 거리를 헤매야 합니다. 대형빌딩을 제외하고는 가게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기 때문이죠. 경사로 있는 가게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유아차를 끌고 편의점에 갈 때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죠. 잠시 아이를 두고 후다닥 물건을 사 올까? 아이를 안고 유아차를 접어 킁킁거리며 들어가야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장애인 친구는 모든 건물 엘리베이터는 고사하고 ‘1층이 있는 삶’은 언제쯤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내는 활동도 했고, 입법운동도 했지만 공익소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 이용자, 고령자, 어린이, 카트를 이용하는 택배 기사와 직원,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의 1층’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대법원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사건이 이어졌고, 공개변론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변호사와 참고인, 공익단체가 함께 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변론을 포함한 사건 수행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이나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선우: 공개변론을 준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보탰다는 점입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님들은 물론 참고인으로 함께해 주신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웅호 이사님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님,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단체들과 활동가분들까지 다양한 분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장애인의 접근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많은 이들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국가배상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보

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을 설명해 보면서 무엇이 직관적으로 와닿고 무엇이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예컨대 “300제곱미터보다 90평이 더 실감 난다”는 등의 반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법적 설득과 사회적 설득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공개변론 당일에는 방청석을 가득 메운 관심과 잇따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관님들의 깊이 있는 질문과 이에 치열하게 답해 나가던 선배 변호사님들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고민이 법정에서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Q3.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와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러한 사례가 지평의 공익활동 또는 미션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선우: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접근권 문제는 더 이상 “가능하면 개선해야 할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장애인 접근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지평이 지향해 온 공익활동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평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가의 역할이 단지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실천해 온 곳이라고 느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법학 공부를 막 시작한 2021년, 임성택 대표변호사님의 “로펌이 달라져야 세상이 바뀝니다”라는 인터뷰를 접하고 지평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02 MEMBERS

2부_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로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중심'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지평에게,
진정성과 윤리성을 가진 진취적인 인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평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절차, 구성원의 다양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2.1 지평의 구성원

지평의 소속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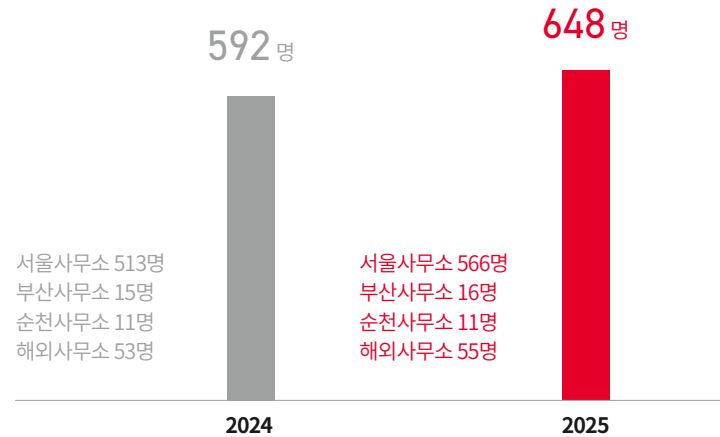
지평의 변호사 채용정책은 한마디로 ‘동업자 찾기’입니다. 지평은 소속변호사가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리크루트 위원회는 최고의 동업자에 어울리는 최선의 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실무수습 선발 및 신입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 기준을 고려 요소로 포함시켜 다양한 출신학교에서 실무수습 및 신입변호사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혼인 여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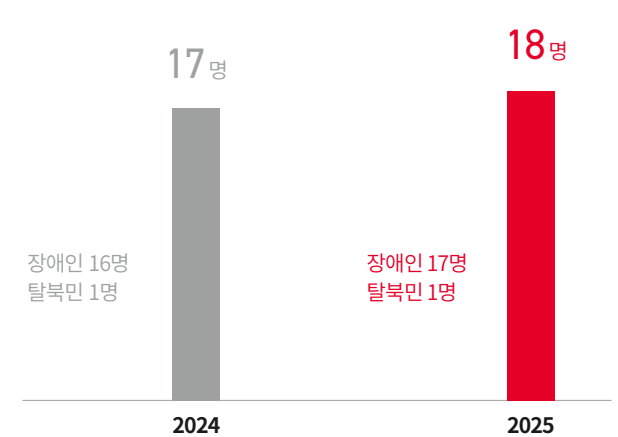
지평의 직원

지평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성별·연령·외모·병력 등 비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별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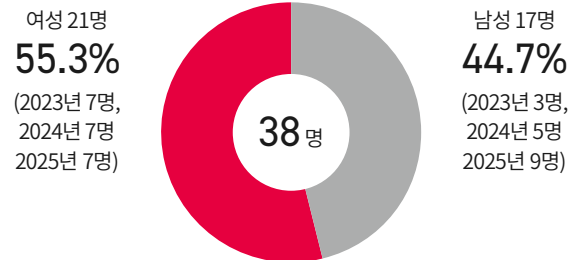


소수자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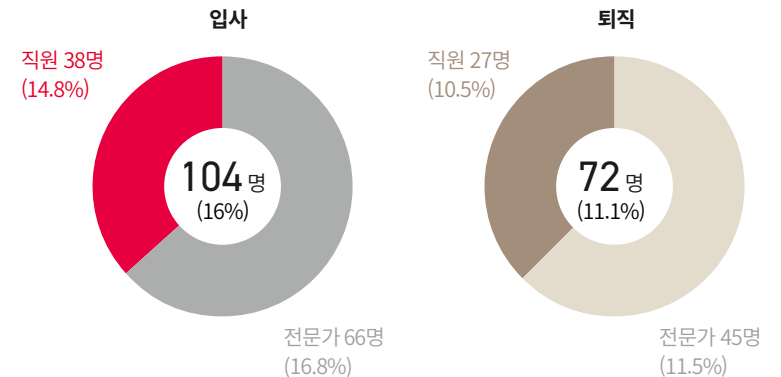


*2025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9%

신입변호사 성별 비율



2025년 입사 및 퇴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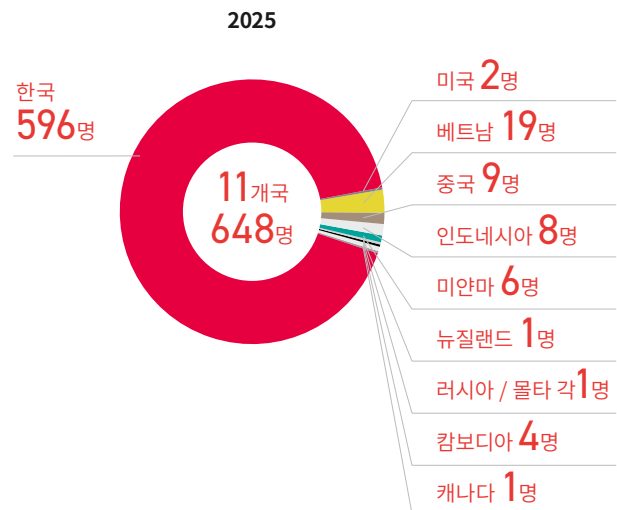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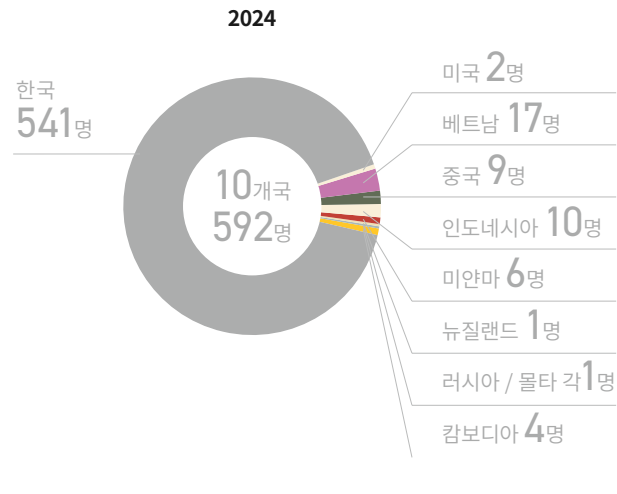
학부별(사법시험) 변호사 구성

경희대	1명
고려대	16명
부산대	1명
서울대	68명
서울시립대	2명
성균관대	4명
연세대	9명
이화여대	3명
카이스트	1명
한양대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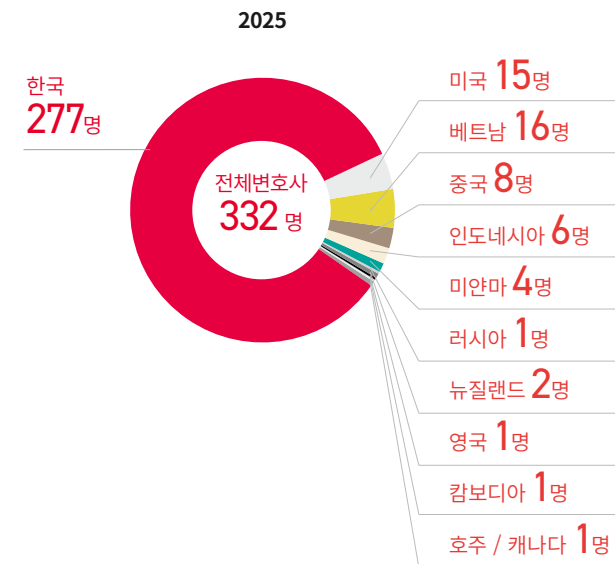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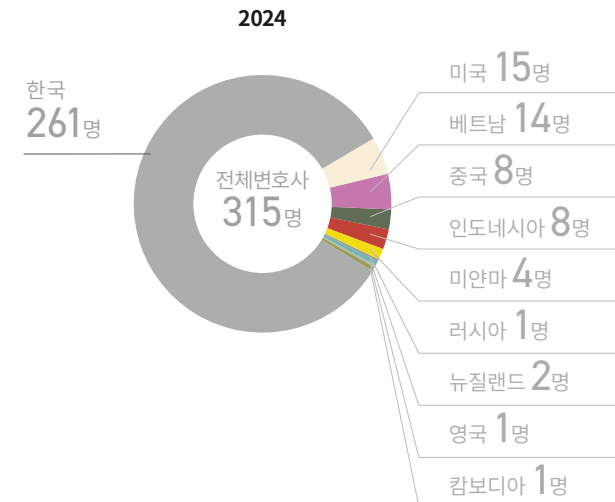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건국대	2명	아주대	2명
경북대	3명	연세대	20명
경희대	3명	원광대	1명
고려대	24명	이화여대	10명
동아대	1명	전남대	3명
부산대	6명	중앙대	1명
서강대	6명	충남대	4명
서울대	69명	충북대	1명
서울시립대	1명	한국외대	2명
성균관대	9명	한양대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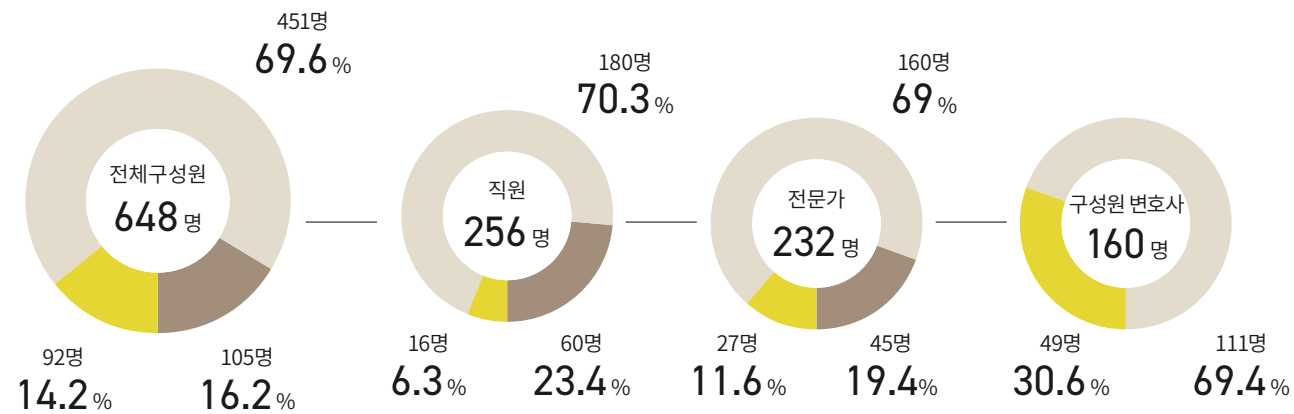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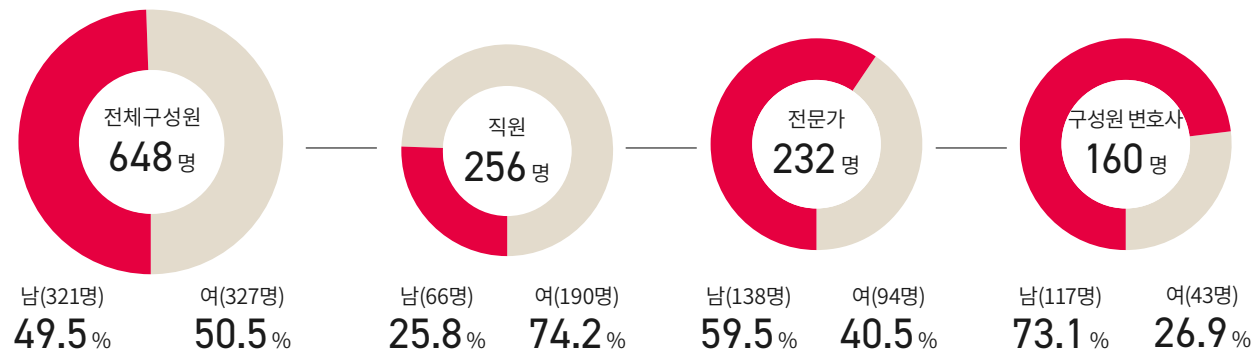
구성원의 국적



변호사 자격 국가



구성원의 연령별/성별 구성(2025)



■ 30세 미만 ■ 30~55세 ■ 55세 이상

02.2 구성원의 역량강화

지평아카데미

지평은 지평아카데미를 통해 지평 내부의 전문가는 물론 학계 전문가, 주요 기업 인사, 특수 산업분야의 전문가 등 외부의 인재를 초청하여 지평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또한 개인의 성장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연주제
상고심의 실제
우리나라 교정행정 현황
금감원 업무와 금융마케팅 전략
특허법인 지평 소개, 기술IP 컨설팅 사례 및 협업방안
로펌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개정 상법 설명회(기업지원 전략 세미나)
인간 본성의 과학 - 진화적 접근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 -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한 시대의 종말 :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과 한국 로펌의 새로운 지평

신입변호사 교육

지평은 신입변호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변호사 교육은 입사 후 2개월 간은 변호사 윤리, 비즈니스 에티켓, 소송, 자문의견 등 법률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주 금요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평의 현황, 역사, 철학 및 문화
좋은 변호사란
팀즈/아웃룩/워드/로피스 활용법
변호사, 그 설레이는 출발을 위하여
변호사와 비즈니스 매너
타임시트 취지와 가이드라인
민사 소장 과제 및 강평
보전처분 강의/보전처분신청서 과제 및 강평
민사 의견서 강의/민사 의견서 과제 및 강평
민사 답변서 과제 및 강평
자문 의견서 과제 및 강평
리서치 과제 및 강평
계약서 코멘트 과제 및 강평
행정소송 소장 과제 및 강평
형사 변론요지서 과제 및 강평
민사 상고이유서 과제 및 강평
실사보고서 과제 및 강평
계약서 과제 및 강평
이사회/주주총회 과제 및 강평

금요세미나

지평의 금요세미나는 신입 변호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주 금요일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법률 전문 지식부터 실무 사례까지 폭넓은 주제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내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
대출계약과 담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M&A 실무와 상법
기업회계 개관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방법
도산법 개관
노동법 개관
조세법 개관
행정소송 쟁점과 사례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
건설부동산업무 개관
공정거래법 개관
금융관계법, 자본시장법 개관
부동산펀드/리츠 제도 개관
국제 분쟁 및 국제 업무
중대재해 및 ESG
지식재산법 개관

직원교육

지평의 직원들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외에도 주제에 따라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정기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
화상 장비 교육
민사사건의 이해
팀장 리더십 집합교육
팀장 리더십 코칭멘토링
재무 비용처리 교육
공정거래 강의
부동산 PF 실무 교육
형사사건의 이해
리더십 교육(코칭 리더십 중심)
가사사건의 이해

1인당 교육훈련시간 통계(서울사무소)

(단위 : 시간)

	전문가		직원		합계	
	총	1인당	총	1인당	총	1인당
2025	3,337.2	9.7	1,562.2	6.7	4,899.4	8.5

신입변호사 교육훈련시간 통계

(단위 : 시간)

	1인당 교육시간		전체 교육시간	
	2024	2025	2024	2025
신입변호사 교육	126.5	126.5	970.5	1,364.5
금요세미나	34.0	34.0	322.0	394
총 시간	160.5	160.5	1,292.5	1,958.5

* 강의, 강평에 소요된 시간+과제에 소요된 시간(각 과제별 실제 참석자 기준으로 산정)

정기적인 인사평가

지평은 소속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연수나 휴직인 경우와 입사 3개월 미만 직원은 정기 인사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위 : %)

구분		평가대상자 비율	
		2024	2025
소속변호사	상반기	81.0	81.8
	하반기	85.6	83.5
직원	상반기	95.9	94.9
	하반기	97.5	95.0

* 서울사무소 기준, 미화 매니저/딜리버리 사원 제외

변호사 장기연수

지평은 예비구성원들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하여 연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연수제도는 해외 및 국내 전문가 과정은 물론 민관 업무형 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예비구성원의 커리어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구분	인원
업무형 연수	-
해외 연수	9
전문가 과정	4

*2024-2025년 연수자

장기연수 칼럼



기업·금융소송그룹 이진안 변호사

저는 회사의 배려 덕분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고려대학교 금융 MBA(FMBA) 과정으로 장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4학기의 과정 중 1학과와 4학기는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고, 2학과와 3학기는 휴직을 하며 온전히 MBA 과정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촌각을 다투던 시간도 뜻깊었지만, 휴직 기간 동안 오롯이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 배움에 깊이 빠져들었던 시간은 제게 무척이나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항상 급하게 사건 기록을 읽고 서면을 작성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MBA 과정에서는 평소 다루던 기업과 시장의 문제들을 재무와 금융의 언어로 새롭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원리, 금융을 위한 수리적 기초, 증권시장과 투자 등 금융 기초 강의를 탄탄히 다졌고, 재무회계와 공시, 기업재무, 관리회계 등 재무·회계 관련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론, 파생상품론,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치평가와 같은 심화 과목은 물론, 상하이 해외 필드 트립까지 참여하며 다채롭고 밀도 있는 학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들과 맺은 인연입니다. 금융 MBA라는 특성상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일반 대기업의 재무팀 및 M&A팀, 그리고 회계사 등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직역의 원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법정 안에서 기록을 토대로 고민하며 세상을 바라보던 저에게,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들과의 교류는 법정 밖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연수 기간은 제 개인의 삶과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러닝, 웨이트트레이닝,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하였고, 이제는 10km를 50분대에 가볍게 뛸 정도로 체력을 기르고 몸도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랑하는 아들과 여유롭게 눈을 맞추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정말 훌륭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장기연수를 통해 그 동안 수행했던 업무들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지금, MBA에서 얻은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로 나아가겠습니다.

02.3 인권과 안전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또한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 채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 시니어 고객을 위한 큰 글자 명함을 도입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 조성은 물론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5년 지평의 장애인 구성원 비율은 3.49%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한 눈에 보는 2025 장애인 통계」 중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민간부문 3.10%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평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부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장애인고용정책과 공익위원회 내 장애인권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 창구

지평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사내 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창구를 통해 징계규정, 징계절차 진행 과정, 사내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사내구성원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사내 문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지평은 사내 고충 처리 창구, 소통 핫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회사 생활 편의사항 개선이나 직장 내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모든 의견은 시스템상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고,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정책반영, 개별적 조치, 일반적 주의 당부 등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여 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지평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무직 고유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보건·정신건강을 위한 조치로 2022년 3월 ‘지평 안전보건경영 방침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제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연속혈당 관리 프로그램]

지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연속혈당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속혈당 관리 프로그램은 연속혈당 측정기를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사용자가 혈당 패턴을 분석하고 식단 및 운동 조절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에 4회, 2025년에 2회에 걸쳐 진행하여 매 회 구성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평은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구성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어,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전문가 칼럼, 런치 레터, 힐링 스토리 등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평은 각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외에도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김상준 대표변호사

▶ 안전관리담당자
총무팀 | 박준형 차장

▶ 보건관리담당자
인사교육팀 | 한창우 차장

인권 관련 교육

지평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인권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시간)

구분	2025
장애인식 개선교육	550
성희롱 예방교육	550
개인정보 보호 교육	439

02.4 노사간 협력

예비구성원회의(전문가)

지평의 소속변호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파트너라는 의미로 예비구성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평 예비구성원회의는 예비구성원의 근로조건 및 일과 삶 균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내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지평은 집행위원회와 예비구성원회의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직원)

지평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구성원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3년의 임기 동안 직원 조직을 대표하여 활동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지평 서울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에 중점을 두고, 정기 및 비정기 의견청취를 통해 수렴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사용자위원회에 전달하며,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대의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의 자문 기구로서 직급 및 부서를 고려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근로자위원 : 정미자, 김영현, 홍운진
- 임기 : 2025. 4. 1. ~ 2028. 3. 31.

신설 복지항목

구성원 복지의 확장 - 건강한 하루의 시작 Grab & Go 조식 프로그램

지평은 구성원의 건강한 아침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행복’ 조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사내 Grab & Go 구역에 매일 아침 간편식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자율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 달 간의 파일럿 운영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 공급량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뉴와 운영 방식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구성원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수검 시 검진 당일 반반차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즉시 반영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확대
- ▶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로 단축
-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12세로 확대
- ▶ 부모 맞돌봄,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아동지원 사유인 경우 육아휴직 6개월 기간 확대

[의견청취]

근로자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의견 요청

- 기간 : 2025. 9. 22. ~ 2025. 9. 30. (총 9일간)
- 방법 :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참여
- 결과 : 내용 청취 후 회사 운영 방침에 점진적 반영

일·가정 양립 관련 현황

구분	내용	2024	2025
전문가	출산휴가만 사용	1건	2건
	육아휴직만 사용	2건	3건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4건	4건
	총계	7건	9건
직원	출산휴가만 사용	-	-
	육아휴직만 사용	1건	1건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1건	6건
	총계	2건	7건
전문가	평균 사용 기간	6개월	5.2개월
직원		14.2개월	14.5개월

(단위 : 명)

구분	2024	2025
육아휴직을 사용한 구성원 수	남성 2	1
	여성 14	13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단위 : 명)

구분	2024	2025
전문가	14	17
직원	54	38

03

SERVICES

3부_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지평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 특화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3.1 지평의 업무영역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중재, M&A,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증권, PE,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구조조정, 지식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가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룹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지평은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 M&A
- 기업법무일반
- 기업지배구조
- 도산·회생·기업구조조정
-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
- 공공정책·입법지원
- 위기관리
- ESG & Sustainability

금융·자본시장·PE

- 부동산금융·실물투자
- SOC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금융/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항공기금융
- IPO·자본시장
- 사모펀드·PE
- 금융규제·금융회사 자문
- 금융회사 M&A·해외진출
- 금융·증권·보험분쟁

분쟁해결

- 금융·증권·보험분쟁
- 건설·부동산분쟁
- 공정거래분쟁
- 인사·노동·노동분쟁
- IP분쟁
- 도산분쟁
- 경영권분쟁·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 상사·민사분쟁
- 해상·항공
- 국제중재
- 해외소송
- 의료소송
- 가사소송
- 조세쟁송
- 언론소송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일반
- 건설행정
- 도시정비·도시개발
- 부동산신탁·PF 분쟁
- 공공계약·민간투자
- 수용보상·감정평가
- 건설환경
- 해외건설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 기업결합
- 하도급
-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 표시광고·약관
- 공정거래 분쟁

인사·노동

- 인사·노동·노동분쟁
-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

형사

- 형사(수사)
- 형사(재판)
- 가상자산 형사대응 TF

지식재산권

- 특허·실용신안·직무발명
-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
- 저작권
- 영업비밀·산업기술·기업정보보호
- 개인정보·데이터·AI
- IP Management 및 전략 컨설팅
- 지식재산권 남용·기술 탈취 분쟁
- 불공정무역행위·통관

상속·가사·가업승계

-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분쟁
-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 기타 가사사건

헌법·행정쟁송

- 헌법소송
- 행정쟁송

조세

- 조세쟁송
- 조세자문
-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 조세형사
- 회계규제
- 관세 및 국제통상

보험

- 보험 분쟁
- 보험 법령
- 특종 보험
- 해상·항공보험·재보험
- 보험회사 검사
- 보험회사 지점 설립/운영
- 보험회사 인수 합작
- 보험회사 상장

ESG & Sustainability

- 환경
- 인권경영, CSR/지속가능성/사회적가치
-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국제

- 국제중재
- Cross-border 소송
- 국제 M&A
- 국제 금융
-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
- 국제 건설 프로젝트 및 건설 분쟁

산업별

-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에너지·자원·인프라
- 건설·부동산
- 전자금융·핀테크
- 기술법무
- 신기술·신산업
- 엔터테인먼트·스포츠·레저
- 게임·e스포츠
- 글로벌 방산
- R&D
- 교육·학교
- 종교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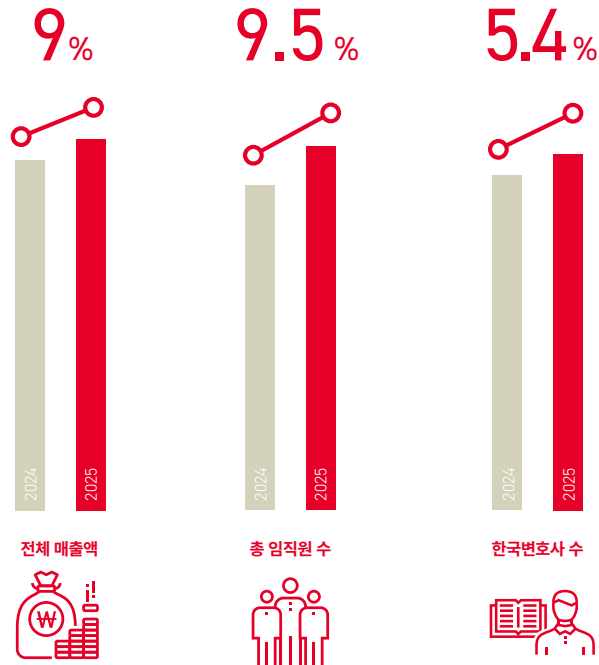
- 중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라오스
- 미얀마
- 러시아·중앙아시아
- 헝가리
- 일본
- 인도
- 미국
- 북미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 중동
- 유럽
- 중남미

센터별

- 6·3 지방선거대응센터
- 공공정책솔루션센터
- 국제개발협력센터
-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 금융증권형사대응센터
- 디지털포렌식센터
- 중대재해대응센터
- 안전경영컨설팅센터
- 조세재정형사대응센터
- 지평기술센터
-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 Si바이오헬스케어센터
- 기후에너지센터
- 부동산PF정상화센터
- 상장유지 지원센터
- 프로젝트리스크 통합지원센터
- 재판소원센터
- 중동부유럽센터
- 동남아법률지원센터
- ESG센터

03.2 사업성과

지평은 2021년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총 임직원 수는 9.5%, 한국변호사 수는 5.4% 증가하며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3.3 신규업무개척

지평의 법률서비스(사업)의 지속가능성

- 2025. 3.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환경 실사의 미래’를 주제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개최
- 2025. 4. 한국스포츠과학원/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함께 스포츠정책포럼 개최
- 2025. 6. 스위스 상장 투자전문회사 엑스라이프 사이언스(Xlife Sciences AG)와 업무협약 체결, 제약바이오 기업 나스닥 상장 세미나를 공동 개최
- 2025. 9. DB손해보험 사이버사고 대응체계 업무협약 체결
- 2025. 9.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글로벌 인권경영 동향과 국내 기업의 실무상 과제’ 포럼 개최
- 2025. 11. 한국환경공단과 ‘기후환경법 포럼: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공동 개최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규제·정책·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지평은 국경 간 거래와 해외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법률, 정책 이슈에 대해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본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재편, 해외규제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정부·정책 대응 및 대관 업무, 국제통상·무역구제 업무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운영하며, 법률전문가 그룹과 기술센터, ESG센터, 특허법인 지평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

지평은 25년간 축적해 온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관련 정책과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지평은 관련 자문 역량을 통합하고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와 기회를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는 인허가 및 규제정책, 프로젝트 계약관리, M&A 및 공정거래, PF 및 금융자문,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 분쟁 대응 등 총 7개의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초기 사업 기획부터 분쟁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원스톱 자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지평은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프로젝트리츠는 기존 리츠 제도에 부동산 개발·운영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투자기구로, 지평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관련 전문성을 축적하여 제도의 취지와 실무 적용 방안에 있어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프로젝트리츠 설립부터 개발·운영 단계까지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한 전문위원 등 대관업무 특화 인력을 바탕으로 신제도 정착 과정에서도 고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바이오헬스케어센터

지평은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화장품 등 생명과학 전반의 전문성을 집약하여 시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AI·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생명과학 산업의 법률·규제·기술적 과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관련 역량을 통합하여 본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이공계 학위 보유 변호사, 의사·약사·변리사·특허법원 판사 출신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라이선싱 자문, 컴플라이언스, 해외 규제 승인 전략, 기업공개(IPO) 등 생명과학 기업의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8개국 9개 해외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컨설팅센터

지평은 기업이 안전 리스크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컨설팅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경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지평은 안전을 경영 판단에 내재화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본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30여 년간 환경·보건·안전(EHS) 분야를 이끌어 온 유충현 센터장을 필두로 공학·안전·보건 분야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예방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TF

지평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고객이 변화된 노동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정의행위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제조·건설·물류·유통·IT·플랫폼·금융·공공서비스·대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TF는 노동, HR컨설팅, 안전환경, 형사, 기업자문 등 약 5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지배력 진단, 교섭 대응 자문, 노동쟁의 및 분쟁 대응,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며,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03.4 업무협약

지평은 한국 로펌 중 가장 많은 8개 국가에 9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해외업무 선도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에도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별 네트워크

2024. 3.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 체결
2024. 3.	케냐 로펌 지앤에이(G&A Advocates LLP)와 업무협약 체결
2024. 3.	SIMC(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국제분쟁 협상과 조정 워크숍’ 개최
2024. 4.	폴란드 로펌 디지피(DZP)와 업무협약 체결
2024. 5.	말레이시아 로펌 테이앤파트너스(Tay & Partners)와 업무협약 체결
2024. 6.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와 업무협약 체결
2024. 8.	체코 로펌 피알케이(PRK Partners)와 업무협약 체결
2024. 9.	세계은행과 B-Ready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2024. 10.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Oppenheim)과 MOU 체결 및 헝가리 사무소 개소
2025. 5.	태국 로펌 구둔 앤 파트너스(Kudun & Partners)와 업무협약(MOU) 체결

03.5 법조윤리의 준수

지평은 고객, 임직원, 회사, 국가 및 사회에 갖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 동시에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은 지평의 모든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에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며 행동 원칙입니다. 지평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

지평은 설립과 함께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관련법규와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은 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운영

지평은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게 법조윤리, 반부패 및 청렴의무준수 및 실천을 요구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현장

1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 직역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의 직역에 따라 적용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리사법과 관련 규정, 공인회계사법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내용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하며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의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신조, 협약 및 규칙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지평의 구성원들은 보편적인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임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지평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사회정의 또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지평의 구성원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7

지평은 동일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8

지평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9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0

지평의 구성원들은 공익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신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지평의 구성원들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지평의 구성원들이 이 윤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 윤리위원회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에게 보고하거나 질의하여야 한다.

윤리성 지표 준수

항목	존재여부
이익충돌 시 내부통제절차	있음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절차	있음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기준여부, 교육여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있음
전관 변호사 및 비법조인 전문가 활용에 관한 법조윤리정책	있음
비법조인 전문가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있음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있음

윤리 통제 절차

집행위원회와 각 그룹장, 팀장들은 윤리성, 청렴성, 반부패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윤리현장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되거나 신고된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받은 사건, 집행위원회 및 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윤리현장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 인력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가 존재합니다.

공직 퇴임 전문가 근무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평의 공직 퇴임 전문가는 법조인 48명, 비법조인 30명입니다.

고객의 비밀 보호

로펌과 그 소속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를 윤리현장 제8조를 통해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과 그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평의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말과 행동, 회사의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

지평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고객과 구성원, 실무수습참가자 등의 귀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비밀등급에 맞게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 및 안전관리 지침」에서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특히 고객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문서는 담당 프로 또는 직원 외의 자에게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해 자체 점검 및 구성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보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지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철 변호사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산팀 | 김진구 부장

이해충돌 방지

지평은 변호사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컨플릭트 체크 기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의 의뢰가 있을 경우 기존에 대리하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평 컨플릭트 체크 기준」은 소송 뿐만 아니라 자문·고문 계약 체결 시에도 실질적 상담 전에 컨플릭트 체크를 하여 수임하거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험한 다른 사건에 대해 컨플릭트 체크를 하여 법령에 저촉되거나 의뢰인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다른 대리인을 소개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3.6 고객과의 소통

세미나 및 웨비나 진행 현황

일시	세미나
2025. 2. 14.	지평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기업의 대응
2025. 2. 20.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2025. 3. 13.	지평 & 양산상공회의소,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
2025. 3. 19.	지평 ESG 센터, Responsible Business 포럼 :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 · 환경 실사의 미래
2025. 3. 21.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2025. 4. 2.	지평 ‘2024 지평 IP0 포럼’ 웨비나
2025. 4. 17.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2025. 5. 13.	지평 & 인도 로펌 카이탄 앤 코(Khaitan & Co),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
2025. 5. 27.	지평 & 태국 로펌 구둔 앤 파트너스(Kudun & Partners), 태국 투자 세미나
2025. 6. 11.	지평, 특허법인 지평 & Xlife Sciences AG,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나스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Exit 전략
2025. 6. 12.	지평 보험팀, 보험 실무 세미나(제7회)
2025. 6. 19.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 KOICA, 기업협력 임팩트 포럼 ‘ESG경영 고도화와 혼합금융협력 모델과 전망’
2025. 6. 30.	지평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2025. 7. 17.	지평 노동그룹,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2025. 8. 20.	지평기술센터, 지평기술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일시	세미나
2025. 9. 11.	지평 & 유니코써치 보드랩,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2025. 9. 18.	지평 &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글로벌 인권경영 동향과 국내 기업의 실무상 과제
2025. 9. 23.	지평, 한국CPO협의회(K-CPO)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SME Privacy Forum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지평: ‘변화하는 프라이버시 환경과 중소기업 · 스타트업 대응전략’
2025. 9. 26.	지평 & 한국사내변호사회 노동학술위원회, 최근 노동관계법령 주요 이슈 및 동향
2025. 10. 1.	지평법정책연구소, 정기세미나 ‘가상자산과 법질서’
2025. 10. 16.	지평 GRC센터, From Risk to Strategy ‘트럼프 2기 규제 시대,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대응 가이드’
2025. 10. 27.	지평 공정거래그룹,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2025. 10. 28.	지평 &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SIMC), [2025 SAF] ‘중견기업을 위한 국제분쟁 전략 & 협상 워크숍’
2025. 10. 30.	지평 & Young ITA, KCAB Next, NYIAC, [2025 SAF] ‘Navigating U.S.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and Dispute Risks for Korean Businesses’
2025. 11. 17.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2025. 11. 19.	지평 & 영국 로펌 빌 앤 코(Beale & Co), 2025 중동 건설시장 업데이트: 변화하는 투자 · 법률 지형
2025. 12. 3.	지평 & 한국사내변호사회, 보전처분과 개발사업에서의 신탁 이슈
2025. 12. 4.	지평 &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2025. 12. 11.	지평 보험팀, 보험 실무 세미나(제8회)

2025년 지평 출판 도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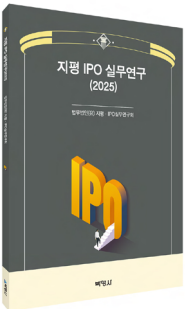
도서명	저자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지평, 두루
지평 IPO 실무연구(2025)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
2024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	지평 노동그룹·중앙경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지평은 아동·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법단체 두루와 함께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에 관심 있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약 1년간 작성·감수·편집에 참여한 결과물입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 신고·입양·양육비, 친권·미성년 후견 등 아동·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10년 넘게 이어온 무료 법률 교육과 본 매뉴얼 집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평 자본시장그룹이 발간한 「지평 IPO 실무연구(2025)」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국내 IPO 최다 법률자문사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IPO 준비 기업과 상장주관사를 위해 실무적인 법률 이슈와 쟁점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년도 발간한 2024년판에 이어 최근 개정된 법령·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IPO 경험과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대법원 판결

에 관한 실무적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는 IPO의 기본사항부터 실무상 주요 쟁점, 특수한 IPO 실무까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연구서를 업데이트하여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발간한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은 2019년 첫 발간 이후 여섯 번째로 출간된 노동판례 단행집으로, 지평 노동그룹이 한 해 동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주요 행정해석례를 엮은 자료입니다.

본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근로자파견 관련 최신 판례 등 2024년 한 해의 주요 노동법 이슈와 동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앞으로도 매년 판례집을 발간하여 노동법을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03.7 법제연구

지평은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법률자문 및 법제개선을 위한 연구영역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고, 더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평이 수행한 법제연구 및 자문]

연도	법제연구 및 자문
2025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 모니터링 연구 용역
	미국 대기환경규제 조사분석 용역
	수입규제 및 북미 경제외교 현안 등 주요 경제분야 법률자문
	국제 반부패 논의 동향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용역
	법인 분사 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 등에 따른 규제 가부 검토
	중장기 경영전략 ESG 등 혁신경영체계 고도화 용역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용역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
	공공저작물 관련 법률검토
	구조고도화촉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
2025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정 가이드라인의 국내법적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검토
	동유럽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여건 및 진출전략 연구 용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참여·지원

지평의 전문가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의 여러 이슈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5명의 전문가가 250여 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학회, 전문가단체 및 NGO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03.8 법학 교육 지원

지평은 2024-2025년 동계 및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 동계·하계 실무실습 프로그램

구분	대상	인원
동계	로스쿨 16기(1학년)	27명
하계	로스쿨 16기(2학년)	31명

법학 교육 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후배 법조인의 양성을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지평은 예비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평의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대학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0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타 대학원에 출강하였습니다.

법학 교육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강 현황

교육기관	인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명
명지대학교	1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명
송실대학교	1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명

실무수습 소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지

직장 생활을 거쳐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그 해답은 구성원들의 ‘유대감’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직이더라도 마음을 나눌 동료가 없다면 고된 업무를 이겨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5년 겨울, 지평 실무수습을 앞두고 설렘만큼이나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평에서의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따뜻한 지지와 격려 속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수습 과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턴들은 첫날부터 머리를 맞대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생소한 가치분 신청서면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각자 찾아낸 정보와 쟁점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인턴 조원들은 경쟁자가 아닌 믿음직한 미래의 동료로서 느껴졌고, 바쁜 업무 중에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지도변호사님들 덕분에 끝까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인연을 오래 이어가게 하는 힘은 함께 쌓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 마지막 날 소감을 말하는 시간, 저는 지평에서의 시간이 ‘로스쿨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경력 한 줄을 넘어, 동기들과 마음을 나누고 선배 변호사님들과 교감하며 지평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추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평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기억은 변호사로서 미래에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동료들과 힘을 합쳐 고객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04

SOCIETY

4부_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지평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지평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공익활동을 담당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4.1 지평의 공익활동 지표

2025년 지평 구성원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합산하면 총 14,772.51시간입니다. 매년 약 87%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변호사 1인 연평균 공익 법률활동 시간은 36시간에 달합니다. 또한 지평 전체구성원들은 2025년 연탄나눔봉사, 소외계층을 위한 빵만들기, 점자도서입력, 무료급식 배식봉사, 헌혈캠페인 등 비법률공익활동으로 총 6,178시간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이론 제도 개선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성과는 단순한 수치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지평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공익활동 시간

14,772시간

변호사 1인당 평균



(9,150.38시간/255명)

참여변호사 1인당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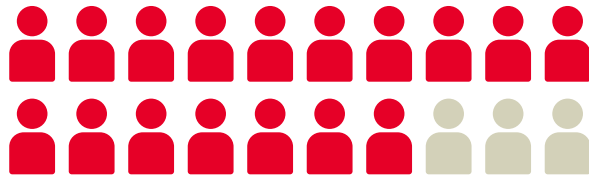


(9,150.38시간/2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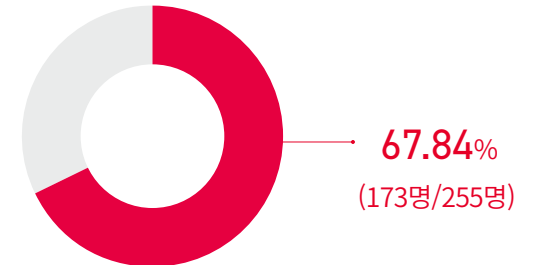
참여 비율

8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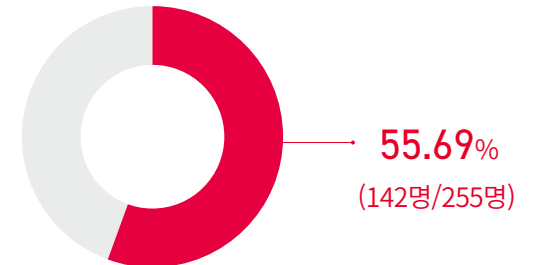
(221명/255명)



20시간 이상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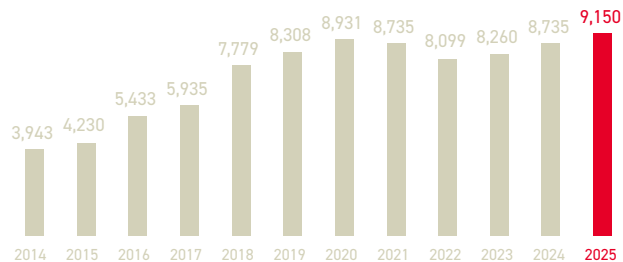


30시간 이상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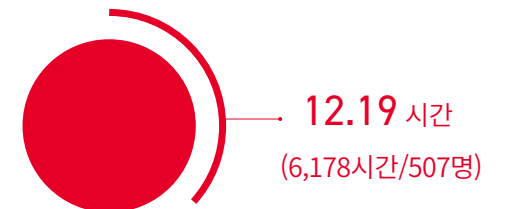
연도별 공익활동 시간

▲
전년도 대비
4.8% 증가



1인당 사회봉사시간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총 공익활동 시간을 제외한 지표는 서울사무소의
공익활동대상 한국변호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공익변호사(사단법인 소속 변호사)의 활동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공익법률활동

1. 장애인권활동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소송 및 제도개선 활동,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소송, 장애인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탈시설 권리 관련 소송

** 모두의 1층 프로젝트 소송 및 제도개선 활동

지평과 두루는 2024년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이후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공이용시설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공공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며,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대응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소송

지평과 두루는 선거에서 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발달장애인들을 대리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보조를 받을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본안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끌어내어 원고가 대통령 선거 및 향후 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헌법소원과 입법 대응을 병행하며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지평과 두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장애인권 보장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장애인권 증진에 장애가 된 ‘걸림돌 판결’ 선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판결의 의미를 분석·공론화하고, 장애인권 관점에서 사법적 판단의 방향을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탈시설 권리 관련 소송

지평과 두루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을 대리하여, 장애인 탈시설 권리에 반하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시설 폐지 과정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의사와 권리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사안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탈시설 정책과 권리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인권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 주요활동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진행 및 법률 매뉴얼 집필·배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수사통지 수사규칙 개정 활동, △수용자자녀 형집행법 개정 활동, △미등록시설 퇴소 아동의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 소송, △자립준비청년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사건 대리,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자격 제한 관련 행정소송·헌법소원, △장애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등 차별 시정 공익소송, △미혼모 대상 애란원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집필·배포

지평과 두루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신고·입양·양육비, 친권·미성년 후견 등 아동·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망라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알아두면 쓸모있는 65가지 아동·청소년 법률지식)’을 집필 및 배포하였고,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자격 제한 관련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학생들과 평등한 지위에서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감 등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수용자자녀 권리 옹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 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5년부터 수용자자녀의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법안을 마련하여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2025년 형집행법에 최초로 ‘수용자자녀’ 정의가 신설되고, 형집행 단계에서 아동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수사통지 수사규칙 개정 활동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등 피해를 입어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기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사실을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거나,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한적인 수사통지 예외규정만을 둔 범죄수사규칙에 문제의식을 느낀 지평과 두루는 법정대리인 통지규정의 예외를 확대하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경찰위원회를 설득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미등록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공익소송

어린 시절 미신고 불법 시설에 맡겨져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는 청년을 대리하여, 아동·청소년 시절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한 시설 운영주자 양모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3. 국제인권활동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해외 NGO, 국내 체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활동, 공항난민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법률 조력,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지평과 두루는 공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공항난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기니 출신 난민신청자 A씨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자국의 정치탄압을 피해 입국하였으나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 5개월간 억류된 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A씨를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참여

지평과 두루는 2025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보고서 심의에 시민사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한 NGO 구두발언, 런치브리핑 등을 통해 이주민·난민 분야의 인권 현황을 전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5월 총 20개 쟁점, 42개 항목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으며,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미등록 이주민 보호, 난민 및 난민신청자 처우 개선, 이주구금 제도개선, 이주아동 인권 보장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권고를 담았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심의 이후에도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기후환경소위원회 신설

지평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부 논의와 실천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공익위원회 산하에 기후환경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공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공모전을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모였고, 이를 토대로 지평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본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출범에 앞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이끈 윤세종 변호사를 초청하여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끌어낸 과정과 함께, 기후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발생하는 ‘느린 재난’인 반면 정치적 의사결정과 경제활동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해결이 쉽지 않은 ‘극난제’로 불린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기후환경소위원회는 기후 관련 소송 및 법률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평 내부의 환경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평은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률적·실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 특별상(사회공헌상) 수상

지평과 두루가 수행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모두의 1층 소송)’이 2025. 12. 11.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평의 ‘AI반도체 기업의 미국 수출통제 자문’과 두루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진행 및 법률매뉴얼 집필·배포’ 활동이 각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송무대상을 수상한 ‘모두의 1층 소송’은 공중이용시설 중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이 24년간 유지되며 약 95%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이 침해되어 온 문제를 다룬 사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자,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상(사회공헌상)을 수상한 ‘AI반도체 기업의 미국 수출통제 자문’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AI 반도체 기술안보 토탈 컴플라이언스(Total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또한 두루의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 집필·배포’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이어온 무료 법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법률 활동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

지평은 2025년 4월 1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3회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을 포함한 총 75명의 구성원이 함께했으며, 하프 마라톤, 10km, 5km, 5km 걷기 등 총 4개 종목에 참여해 모두 완주하였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에 동참하는 나눔의 자리였습니다. 지평은 이번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공익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

지평은 2025년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제10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오랜 시간 지평이 이어온 대표적인 참여형 나눔 활동으로, 올해에도 구성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뜻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성원들의 기증과 봉사 참여를 바탕으로 물품 판매와 현장 운영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되어 소외아동 정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구성원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익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습니다.

희망 옷 나눔

지평은 연말을 맞아 노숙인 지원을 위한 ‘희망 옷 나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방한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지평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겨울철 방한용 의류를 기증하였으며, 수집된 의류는 모두 발송하여 노숙인 지원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평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익활동의 의미를 실천하였습니다. 지평은 이번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공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행사

지평은 성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평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정성껏 김치를 담갔으며, 지평은 이를 통해 마련한 김치를 성수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였습

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한편,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한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에코백 & 티셔츠 만들기

지평은 2025년 「사랑의 에코백, 사랑의 티셔츠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제작한 물품을 해외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며 참여형 나눔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손수 만든 에코백과 티셔츠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일상 속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정기적인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이웃

재정기부활동

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정성껏 만든 빵은 독거 어르신, 노숙인, 저소득 조선폭, 탈북민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평은 일상 속에서 공익적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였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은 서울특별시립 다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노숙인 등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식 지원과 설거지,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평은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식생활 지원에 힘을 보태는 한편,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였습니다.

점자도서 원고 입력

지평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으며 시각장애인의 독서와 정보 접근을 지

원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이 정성껏 참여한 점자도서 원고 입력 활동은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지평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였습니다.

연탄나눔

지평은 2025년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지평 구성원들은 직접 연탄을 나르며 취약계층 가정에 필요한 온기를 전했고, 현장 봉사를 통해 이웃의 일상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화 그리기

지평은 2025년 7월 서울인수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학교 복도 공간

을 보다 밝고 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평은 이번 활동을 통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가치를 실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헌혈 캠페인

지평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평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참여형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평은 수혈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일상 속에서 공익적 책임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실천하였습니다.

매칭그랜트

지평은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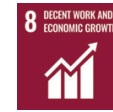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 학교’ 지원 · 이음장애인자립센터 지원
- 난민영화제 지원 · 난민인권센터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사랑의 나눔 캠페인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회 여름캠프 지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후원행사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지원

04.2 공익활동 측정 또는 평가

목표: SDGs에 따른 분류

지평은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한 경영활동과 함께 법률 및 비법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SDGs	활동
	• 연탄나눔 • 사랑의 에코백 & 티셔츠 만들기 •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 대회 •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행사 • 제10회 아름다운 토요일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 봉사 •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 직원 대상 건강검진 제도 운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연속혈당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 '기분좋은 등교길을 그리다' 사랑의 나눔 헌혈 캠페인
	• 구성원 필수 교육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자격 제한 관련 차별구제 법률지원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교육 · 노동법률교육 • 찾아가는 법률교육 • 애란원 법률교육 및 자료 접자도서 원고 입력 겨레알학교 후원 • 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 출강
	•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배제



- 장애인 사회적기업 법률자문
- 생협 연합회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장애인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 사회적기업 물품 조달을 통한 고용창출 기여



- 사회적기업 ·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자문변호사 활동
- 탈시설 권리 관련 소송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여
-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활동



- 장애 인권활동
-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소송
- 북한장애인실태조사 연구 참여
- 장애인보호법위반 형사사건 지원



- 이동약자를 대리한 차별구제소송('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 뇌병변 장애인 활동형 휠체어 지원을 위한 법 · 제도개선 자문



- 친환경 차량 정책 | Paperless Office |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시행
- 기후환경소위원회 신설
- Responsible Business 포럼 개최



- Paperless Office |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시행



- 발달장애인 참정권(투표보조) 소송
- 학생 인권조례 관련 법률지원
- 소년보호사건 국선변호
- 이민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 수용자자녀 권리 옹호 형집행법 개정 활동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수사통지 수사규칙 개정 활동
- 미등록시설 퇴소 아동 공익 소송
- 자립준비청년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사건 대리
- 장애인 접근법 보장 법제 모니터링 연구



-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 가입 및 활동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및 활동

04.3 환경정책 및 사업

Responsible Business 포럼 개최

지평 ESG센터는 2025년 3월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환경 실사의 미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WBA(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전문가와 함께 2026년 변경 예정인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평가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옴니버스 패키지 채택 시 ESRS 공시 기준 간소화 가능성과 CSRD 적용 기업들의 대응 방향,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현황과 보완 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지평 ESG센터는 앞으로도 Responsible Business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ESG 및 기업책임경영 관계자들에게 국내외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ESG 규제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Paperless Office &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기여

지평은 Paperless Office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료 보안 강화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복사용지 소비량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구성원 증가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은 1.44박스에서 1.15박스로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며,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와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량	2024		2025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복사용지1BOX(2,500장)	760	1.44	760	1.15

친환경 차량 정책

지평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인승 차량을 추가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법인차량 중 친환경차량 비율이 22%였던 것에 비해, 2025년에는 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4		2025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전체 법인차량	77	100%	79	100%
친환경차량	17	22%	23	29%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지평은 꾸준한 성장과 함께 사무공간을 확대해 오면서 전체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인당 전기 사용량과 CO₂ 발생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평은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24		2025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기(kWh)	558,757.0	1,062	698,021.0	1,056
수도(t)	498.0	0.95	626.5	0.95
CO ₂ 발생량(kg)	267,259.7	508.1	333,872.3	505.1

(참고: 2024, 2025년 서울사무소 구성원 1인당 환산)

INTERVIEW

공익전담 업무와 지평의 공익활동



강혜련 책임연구원

1. 공익전담 업무를 맡게 되신 계기와 현재 담당하고 계신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은 다른 업무와 함께 공익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평의 공익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에 공익전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지원하며 활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로 남기고, 공익활동의 의미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업무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위원회 운영과 CSR 관련 업무를 지원하면서 지평의 공익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공익전담 업무를 수행하시며 느끼는 공익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요?

공익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삶을 잠시 마주 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활동 시간이나 참여 인원 같은 숫자들이 남습니다. 몇 시간의 Pro Bono, 몇 명의 참여자, 몇 개의 프로그램. 하지만 현장에는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이 공익활동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3. 공익활동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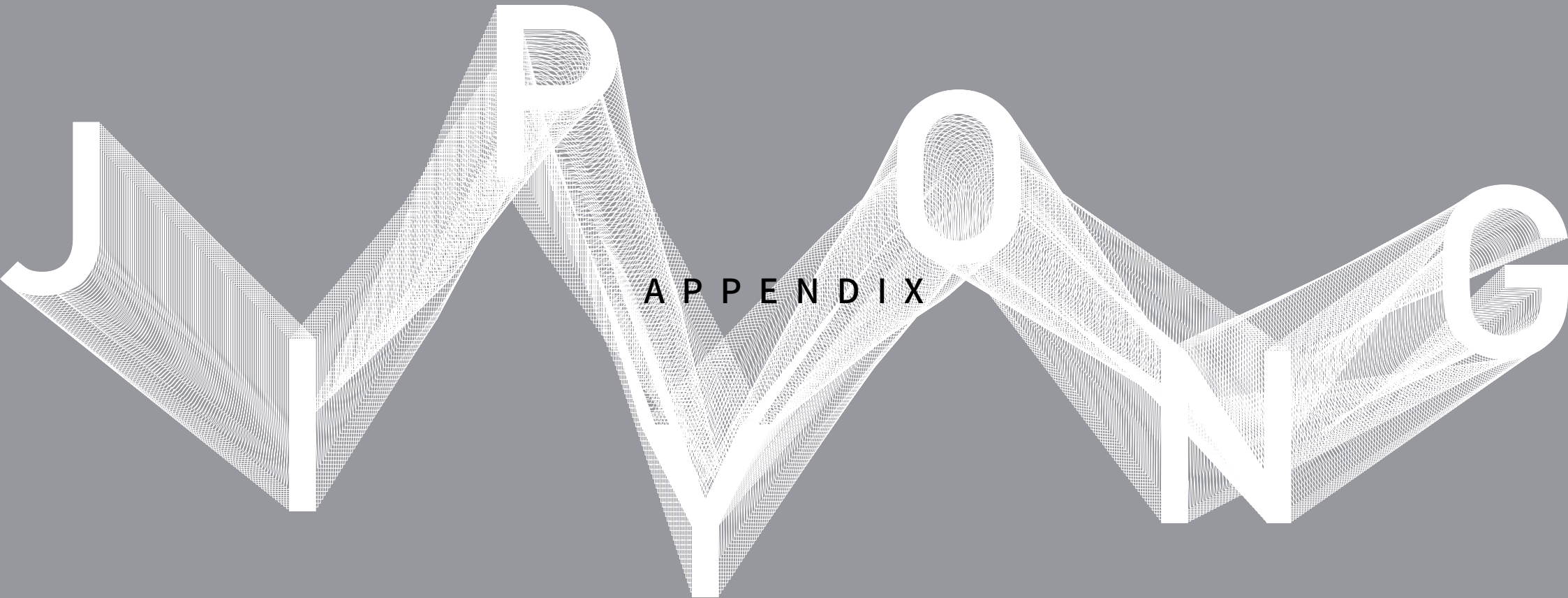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날을 세우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

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편견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멘토링이 끝나던 날,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꼭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4. 지평의 공익활동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성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평이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공익활동이 지평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더 많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은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분들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는 때로 의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공익활동의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의 공익활동이 더 많은 의미 있는 만남과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익전담 책임연구원으로서 그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공익활동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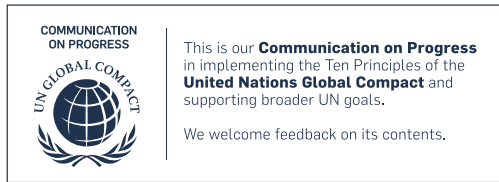
GRI 인덱스

GRI 표준	지표	주제	보고 위치
조직 프로필	2-1	조직 세부 정보	6
	2-2	조직의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법인	6
	2-3	보고기간, 보고주기 및 문의처	47
	2-4	정보 수정	17-18
기업활동 및 임직원	2-6	활동, 가치사슬, 기타 비즈니스 관계	8
	2-7	임직원 수, 성별/연령별 현황	12-15
거버넌스	2-9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6
	2-10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추천 및 선정	6
	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6
	2-1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6, 8
	2-13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책임의 위임	6, 8
	2-14	지속가능성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8
	2-15	이해충돌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장치	28
	2-16	중요 사항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소통	6, 20-21
	2-1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지식과 기술	6
	2-18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전략	2-21	연간 총 보상 비율	
	2-22	지속가능경영 전략 성명서	4
	2-23	정책 공약	4
	2-24	정책 공약 이행	4
	2-26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	19
	2-27	법률 및 규정 준수	26-28
	2-28	가입 협회	45
	2-29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8
	2-30	단체 협약	20
핵심주제 공개	3-1	중요 토픽 결정 프로세스	
	3-2	중요 토픽 목록	
	3-3	중요 토픽 관리	

GRI 표준	지표	주제	보고 위치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리스크 평가	26-28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교육	26-28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26-28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41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41
	302-3	에너지 집약도	41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41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온실가스배출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고용	401-1	신규 채용과 이직자 현황	12
	401-2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	20-21
	401-3	육아휴직 사용 현황 및 업무 복귀, 근속 비율	21
산업안전보건	403-1	직장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19-20
	403-2	위험 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19-20
	403-3	산업안전보건서비스	19-20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19-20
	403-5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교육	19-20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	19-20
	403-7	비즈니스 관계와 직결된 산업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19-20
	403-8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적용 대상 근로자	19-20
	403-9	업무 관련 재해	
	403-10	업무 관련 질병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16-18
	404-2	임직원 역량강화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16-18
	404-3	정기적으로 성과 및 경력 개발 피드백을 받는 임직원 비율	16-18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의 구성 현황	6, 12-15
차별금지	406-1	차별 사례 및 이에 대한 조치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36-39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지평은 2019년 10월 17일 국내 로펌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념과 10대 원칙을 적극 지지합니다.



구분	원칙	활동
인권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비법을 공익활동을 통해 국내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지평은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합니다. 지평은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과 국가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한 구성원을 채용하며, 소수자차별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원칙5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지평은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지평은 사무실의 자원·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지평은 윤리헌장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평가지표

분야	평가지표	2025
구조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공익활동 규정 제정여부	있음
	공익활동 프로그램/목표 설정 여부	있음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고용여부	있음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고용여부	있음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여부	있음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9명 : 255명 (외국변호사 포함 10명 : 255명)
활동	공익활동 관련 교육제공 여부	있음
	총 공익활동 시간	연간 교육시간: 4.5시간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14,772.51시간
	변호사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1.85% (9,150.38시간/494,444.15시간)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35.88시간 (9,150.38시간/255명)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41.40시간 (9,150.38시간/221명)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6.67% (221명/255명)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67.84 (173명/255명)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55.69% (142명/255명)
		예비구성원 (110명/126명) 87.30% 36.50시간
		파트너변호사 (111명/129명) 86.05% 46.31시간

분야	평가지표	2025
공익활동 관련 예산	공익활동지원비	22,506,778원
	공익활동교육지원비	2,357,880원
	외부공익단체지원비	520,440,000원
	총액	545,304,658원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40건
	공익자문	125건
	공익상담	196건
활동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본문 36-39페이지 참조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자원자 배당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 지원	본문 36-39페이지 참조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본문 36-39페이지 참조
평가 보상	공익활동이 평가 승진 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전문가 및 직원 연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소속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25
기부	기부총액	672,540,000원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액수	1,326,508원/507명 ¹⁾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0.33% (607,540,000원/672,540,000원)
	기부현황	본문 39페이지 참조
사회 봉사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6,178시간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12.19시간 (6,178시간/507명)
	사회봉사활동 현황	본문 38-39페이지 참조

1) 공익활동 의무 대상인 서울사무소 구성원 수

보고서 개요

보고서 발행처

법무법인(유한) 지평

보고서 정보

지평은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 추진의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기간

이 보고서는 2025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직전 보고서 발행일 2025년 6월 24일) 이 보고서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서울사무소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부 성과는 해외 사무소의 내용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에 관련한 정보는 모든 사무소의 구성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보고기준

이 보고서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andards(Core Option)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를 참고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사회적가치위원회사무국
김영수 변호사